

종합·해설

민선 5기 1년

图 2할 차지 재정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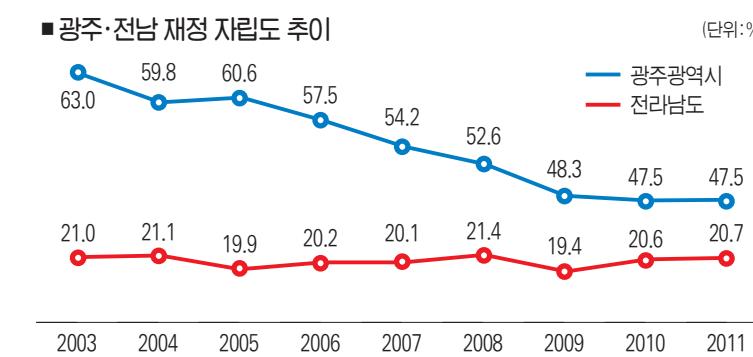
비어가는 공간... 인건비도 못줄 판

현안사업 빛내서 투자, 자립도 갈수록 하락
국세·지방세 조정, 배분 기준 변경 서둘러야

지난해 하반기 민선 5기를 시작한 광주시 각 자치구는 '텅 빈 곳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열악했던 것이다. 광주시 역시 2000여 원이 부족하게 예산안이 짜여있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역시 줄어드는 인구, 노인 증가,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어나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 등은 F1 대회, 여수엑스포 등을 개최하면서 지난 2010년 말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1조3173억원에 달할 정도로 채무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도가 5190억원, 여수 1399억원, 목포 1271억원, 무안 485억원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이들 지방세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가가 제 때, 필요한 만큼, 지원하지 않으면서 빚을 내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신안 등 군의 평균은 11.7%였다. 자체적으로는 사업은 물론 인건비 조차 못 줄 형편의 이들 자치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에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다.

'갈수록 빚은 늘고 공간은 비어가는' 이 같은 현상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

전남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농·어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기반이 단기간에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구 감소세는 이 같은 재정 어려움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소비세를 향상,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대21이며 이를 중앙부처가 49%, 지방자치단체가 51%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자치체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세입이 적어 중앙부처에서 나눠주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지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세입이 있는 자치체에는 지원을 줄이고, 대신 세원 자체가 빙약한 자치체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이 인구나 가구 등 규모에 비례해 보조 정도를 결정하게 되면 자치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茶문화 배우세요

2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광주 국제 차 문화 전시회'에서 한복을 끼고 차려입은 다인(茶人)들이 전통 다례를 시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나라 등록금 2014년까지 30%인하 일방 발표

青·政 "합의도 없이..." 부글부글

영수회답 악재?... 민주 "졸속정책 평가절하"

한나라당이 정부와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등록금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정청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대책이 발표된 데 대해 당 안팎으로 "조급함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며 합의가 안됐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가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여론·언론의 불만이 점증하는 데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정부 재정 1조5000억원과 5000억원의 대학 자체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올해보다 15%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2013년에는 1조5000억원 외에 추가로 8000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 등록금을 현재보다 24% 낮추고, 2014년에는 또다시 2조3000억원 외에 7000억원의 재정을 추가투입해 30% 인하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지만, 이 같은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날 밤 이뤄진 당정협의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며 합의가 안됐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가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여론·언론의 불만이 점증하는 데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등록금 이슈가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안 마련에 진척이 없는 데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 속에 황 원내대표가 치밀한 준비 없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당을 어렵게 했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동시에 '돈 줄'을 전 기재부가 재정 자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미확정 안이라도 언론에 발표해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관측도 나

오고 있다.

오는 27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영수회답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도 '성급한' 발표의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영수회답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었던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의 공(攻)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들어 있다"면서 "회답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애당 대표나 애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은 국민이 요구하는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 또 중요한 재원대책도 빠져 있다"며 "더없이 여야 영수회답이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 서둘러서 졸속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만령

- 김종우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김치 규격화, 품질 인증제 도입

국회 김치산업 진흥법 의결

김치에 대한 국제 규격화가 추진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김치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김치산업진흥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종합계획, 김치의 대표브랜드 선정,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울러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 차원에서 김치 제조기술 보급·전수, 김치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정해결 의원은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함께 관세특례법·세무사법·저작권법·공인회계사법·자유무역지역·지정운영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등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지원 법안 등 모두 72개 법률안과 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본큐슈 빌라형콘도숙박 4일!!

단 2회!! (7/19, 20) ₩29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팁, 국내수송

파격특가

장흥에서 오렌지호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7월 2일~17일 3일 ₩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 (₩10,000), 광주↔장흥 수송비, 필수옵션 2회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대표이사 죄 금 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렌지호 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 박 목포 - 제주도 ₩139,000원~

장흥 - 제주도 ₩1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항 공 광주 - 제주도 ₩24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원)

*후원 :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원~

2박3일 ₩309,000원~

광주에서 출발하는 흥도 1박2일 ₩177,000원~

일 본

광양화물로 떠나는 북큐슈

4일 기타큐슈, 야마구치 ₩269,000원

▶ 출발일 : 6/29

불포함: 개인경비, 기사와 가이드팁, 국내수송, 유류할증료(₩35,000)

부산에서 카밀리나호로 떠나는 큐슈여행

4일 일본 빌라형 콘도 ₩339,000원

▶ 출발일 : 7/6, 14, 17

불포함: 기사와 가이드팁, 유류할증료

4일 일본 나가사키, 큐슈 온천여행 ₩378,000원

▶ 출발일 : 7/17

불포함: 기사와 가이드팁, 유류할증료

4일 일본의 전통로간 카이세키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온천여행 ₩714, 19 ₩378,000원

▶ 출발일 : 7/14, 19

불포함: 기사와 가이드팁, 유류할증료

4일 최성수기 여름휴가철 큐슈여행 ₩489,000원

▶ 출발일 : 7/26, 28, 29

불포함: 기사와 가이드팁, 유류할증료

9일 터키 / 그리스 (OZ) ▶ 출발일 : 8/13 ₩3,190,000원

불포함: 현지선택관광, 가이드&기사 / 공통경비(1일당~10유로), 각종메리츠

중 국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천항에서 대마도까지 떠나는 고구려역사탐방!!

6일 대련 삼양 백두산 고구려유적 ₩659,000원

▶ 출발일 : 7/21, 23, 28, 8/6, 11, 13

불포함: 개인경비, 가이드와 기사(20\$), 개인비용

4일 연길 백두산 ₩1,259,000원

▶ 출발일 : 7/25, 28, 8/1, 4

불포함: 사항: 개인비용, 가